



3면
문 대통령에 쏟아진
각국 정상 러브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음 3월 4일) 제25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신속 집행

전북도, 긴급예산 80%인 77억원 14개 시군 지급 행정명령 대상 9859곳 점검, 2871곳 행정 지도

전북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에 돌입하며 신속한 집행을 나섰다.

또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난 25일부터 강력하게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도는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1만 3280곳에 대한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운영제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자금 집행을 시작하는 등 코로나19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한 초고속 행정에 나선 것이다.

도는 25일까지 긴급지원금 예상 소요 예산의 80%인 77억원을 도내 14개 시군에 지급했다.

25일 현재 긴급지원금 신청 건수는 8936건이며 각 시군은 26일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긴급지원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을 26일까지로 하루 연장했으며 시군에서 최종 접수된 긴급지원금 내역을 제출받는 대로 잔여 예산도 신속히 지급한다.

도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과 병행해 해당 시설에 대한 강력한 운영제한 권고와 철저한 현장점검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강행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25일 현재 행정명령대상시설 중 74%인 9859곳을 점검하고 이 중 2871곳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계도하는 등 행정지도도 했다.

행정지도 대상시설은 폴센터 6곳, 노래방 77곳, PC방 106곳, 학원 112곳, 중

교시설 2213곳, 노인시설 2곳, 실내체육시설 76곳, 유흥시설 273곳, 기타 8곳 등이다.

도는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해 영업 또는 집회 중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미이행하는 곳은 폐쇄명령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함께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강력한 점검을 병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불편이 따르겠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지역의 경제를 지키는 생각으로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하비마을 앞 일대가 음식물 폐기물 등 쓰레기들로 방치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사진 왼쪽). 또한 불법 매립한 논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사진 왼쪽). 또한 불법 매립한 논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하비마을 무단 쓰레기로 '몸살'

음식물 폐기물에 침출수까지 흘러내려...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하비마을 앞 일대가 최근에 음식물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는 하비, 쓰레기들로 방치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비마을 앞 논에는 지주가 임대인에게 농작물만 지을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의 동의 없이 외부에서 반출된 음식물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럼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매립한 논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출수가 흘러내린다.

이에 따라 주변을 오염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마을 일대에는 이미 매립이 완료된 논이 있어 비가 오면 주변 하

천은 물론 논과 밭이 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을 도로 주변에는 불법 쓰레기 무단 방치로 청정무주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관광객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폐기물로 인해 마을 앞 계곡 물과 논이 오염되면 생산되는 농작물은 과연 먹을 사람이 누가 있는

냐"며 "군위에게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분노했다.

Y 모씨(적상면 65)는 "음식물 폐기물이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충북 청주시에서 반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주군 무풍면에도 여러 번 찾아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 모씨는 "익산에서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살려고 청정지역 무주에 이사 왔는데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송하진 도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대도민 특별 호소

송하진 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을 합치며 대도민 호소에 나섰다.

송 지사는 26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는 제목의 특별 호소문을 공개했다.

그는 "개학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가 새로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또한 정부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정부안에 포함된 실내체육·유흥시설·종교시설 외에도 PC방, 노래방, 학원, 폴센터, 영화관 등 7200여 시설을 추가 지정해 도내 총 1만3000여 시설에 대해 4월5일까지 운영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로 인해 도민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도가 함께 짊어지고 나누고 있다"면서 "운영 제한과 동시에 도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제



한시설 모두에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역시 전국 최초로

편성한 1차 추경예산 2456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2차 추경까지 추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도민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배려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선한 백성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2020년 4월 6일,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봄을 안겨줄 수 있을지는 이번 주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결정할 것"이라며 "찬란한 봄날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 정다운 모임이나 종교활동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만 거두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송 지사 '방문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제한' 전국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부족으로 영농철 비상이 걸린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방문외국인 계절근로 허용이 전국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송 지사가 제안한 방문(F-1)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전국 시도에 관련 공문을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도내 과수, 노지채소에 부족한 인력을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3농가에서 228명을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어 대책이 나섰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지역의 사정을 전하고 협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농가와 1:1 전화통화로 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전하고 농가의 수요도 조사했다.

도는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재난대책회의(3.25.)에서 방문(F-1)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도내 체류 외국인(2,322명)에게 체류목적의 활동허가를 허용토록 제안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북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배포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익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언론인 개인 소장품,
유산 기증 캠페인**

전· 현직 언론인의 역사를 기록하여, 저널리즘의 가치와 그 숭고한 길을 되짚어 다시 세우는 상징을 만들고자 합니다.

☑ 기증기간 : 2020년 3월 2일 ~ 4월 15일 ☑ 기증품목 : 물품, 자료, 사진, 그림 등 보도물을 제외한 모든 언론관련 소장품

☑ 기증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진흥실(02-2001-7760) ※ 4월 말 개관 예정인 「미디어 교육원」에 상설 전시 예정